



임성재의 아이언 샷.

연합뉴스

임성재 '톱5'... 새해 기대감 상승

PGA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챔피언스 공동 5위 잉글리시 연장전서 니만 꺾고 7년 만의 우승

임성재 (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11일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7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7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잰더 쇼플리(미국)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인 해리스 잉글리시(미국·25언더파 267

타)와는 4타 차다.

이로써 임성재는 지난해 11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준우승 이후 2020-2021 시즌 두번째 톱10에 진입했다.

2020년 투어 대회 우승자와 2019-2020시즌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등 42명만 출전하는 이 대회에 임성재는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우승에 힘입어 처음으로 출전, 상위권 성적으로 새해의 기대감을 높였다.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5위로 4라운드에 나선 임성재는 1번 홀(파4) 홀에 들어갈 뻔한 날카로운 두 번째 샷을 앞세워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2~

3번 홀 연속 보기로 기세를 잊지 못했다. 5번 홀(파5) 투온 투퍼트 버디로 만회했지만, 전반엔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우승 경쟁에선 다소 멀어졌다.

한때 10위 밖으로 밀려났던 임성재는 1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1.5m 남짓한 곳에 붙여 후반 첫 버디를 잡아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고, 16~18번 홀에선 연속 버디로 뒷심을 발휘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잉글리시는 호야킨 니만(칠레)과의 연장전 끝에 PGA 투어 새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 6월 세인트루즈 클래식, 그해 11월 OHL 클래식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우승 갈증을 푼 잉글리시는 우승 상금 134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휴식기 앞둔 프로농구 숨 막히는 중위권 경쟁

1, 2위가 4경기 차인데 2위부터 8위까지도 4경기 차다. 올스타 휴식기를 앞둔 2020-2021 프로농구 정규리그 현재 순위가 그렇다.

반환점을 돌아 팀당 28~30경기를 치른 10일 현재 선두는 전주 KCC다. KCC는 최근 10연승의 파죽지세로 21승 8패, 10개 팀 중 유일하게 7할대 승률(0.724)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단독 선두로 나선 이

후 경쟁 팀들과 격차를 조금씩 벌려온 KCC는 어느새 2위 고양 오리온(17승 12패)에 4경기 차로 앞서 나가고 있다.

KCC는 전자랜드와 경기를 마치고 일찌감치 올스타 휴식기를 맞으며 후반기 레이스 준비에 들어갔다.

KCC는 19일 창원 LG와 대결로 리그를 재개할 때까지 경기가 없다.

이번 주에도 2위를 비롯한 중위권 순위 싸움만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2위 오리온부터 8위 서울 SK까지 7개 팀이 4경기 차 안에 몰려 있다.

최근 3연승으로 3위까지 올라선 울산 현대모비스(17승 13패)가 오리온

을 0.5경기 차로 쫓고 있고, 2연패를 당해 4위로 미끄러진 안양 KGC인삼공사(16승 13패)가 현대모비스에 0.5경기 차인 4위에 올라 있다.

이어 부산 kt(14승 14패)와 인천 전자랜드(15승 15패)가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고, 서울 삼성(14승 15패)과 서울 SK(13승 16패)가 6강 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경기 수가 적은 탓에 순위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중위권 팀들 간 맞대결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시즌 공동 1위였으나 올 시즌 8위로 내려앉은 SK는 11일 삼성과의 'S-더비'에 이어 13일에는 오리온과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개최 부정 여론 최고조

취소·재연기 응답자 80.1% 개막 193일 앞두고 위기 직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대회 개막 193일을 앞둔 11일 현재 일본 안팎에서 올림픽 개최 회의론이 퍼져가고 있다.

교도통신이 10일 발표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부정 여론은 최고조를 찍었다. 전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5.3%는 올림픽 취소율, 44.8%는 재연기를 각각 택했다.

취소·재연기 여론이 80.1%를 찍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 NHK 여론 조사의 취소·재연기 응답률 63%보다도 17%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긴급 사태 선언을 주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결과가 올림픽 개최 부정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올림픽 부정 여론 상승에 내각 지지율마저 휘청거리려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41.3%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급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2.8%를 기록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는 1년 미뤄진 올림픽이 7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재연기는 없고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려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수시 코로나19 검사, 선수들의 올림픽선수촌 체류 최소화 등과 관련한 정밀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올림픽 참가자들은 또 대회 시작 전 백신을 접종해 감염 확산 우려를 줄여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역 최장수 위원인 캐나다 출신 디 파운드 씨는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고 회의론에 불을 붙였다.

파운드 위원은 작년에 IOC와 일본 정부, 도쿄조직위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집할 때 IOC 고위 인사로는 가장 먼저 올림픽 취소 또는 연기를 주장한 인물이다.

파운드 위원은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려면 선수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레슬링 75kg 금메달리스트인 에리카 워브(캐나다)는 선수가 아닌 고령자, 보건 취약 계층, 코로나19 일선에서 싸우는 보건 관계자 등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파운드 위원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코로나19 확산이 올림픽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4월까지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호날두의 거침없는 돌파 11일 (한국시간) 이탈리아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사수올로의 2020-2021 세리에A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호날두가 수비 옆에 두고 돌파를 하고 있다. 호날두는 후반 47분 정규리그 15호 골을 쏘아 올리며 유럽 5대 축구리그에서 15시즌 연속 15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날 유벤투스는 사수올로를 3-1로 완파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서귀포에서 훈련 돌입

도쿄 올림픽 대비 담금질

여자 축구대표팀이 2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에 대비해 전남 강진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강진에서, 이후 다음 달 18일까지 서귀포에서 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여자축구는 지난해 2월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A조 1위에 오르며 B조 2위 중국과의 PO를 남겨두고 있다.

PO는 애초 지난해 3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뤄졌고,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아예 해를 바꿔 열리게 됐다.

1차전은 2월 19일 오후 8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같은 달 24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여기서 중국을 꺾으면 한국 여자축구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새 역사를 쓴다.

연합뉴스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비데렌탈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정로터리 | 버스 | 제주제일요양병원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 신제주로터리

BD-AFE50N	BD-N530A	BD-N443(리모컨)
<p style="text-align: center;">3년 약정 무상 A/S</p>	<p style="text-align: center;">3년 약정 무상 A/S</p>	<p style="text-align: center;">3년 약정 무상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래변, 순간온수방식, 어린이기능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월 16,9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공기방울리듬세정, 접이식조작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월 19,9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리모컨형, 탈취, 공기방울세정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월 24,900원</p>

문의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064)758-0991 | 제주시 연삼로17(연동)